

〈書 評〉

## Romnatic Idealism의 한 美國的 傳統

金容權 著 *Alfred Stieglitz and His Time: An Intellectual Portrait*

서울 : 서울大學校 美國學研究所, 1978. 141pp.

千 滕 傑

서울大 英文學科

하나의 학문으로서 美國學의 역사는 매우 日淺하다. 미국학에 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한 것은 반 세기 전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론과 방법이 본격적으로 연구 검토되고 미국학이 미국의 몇몇 대학에 독립된 교과 program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1940년대 말에 이르러서였다. 미국학은, 그 방법론 및 교과 과정상의 여러 문제점들에 관하여 아직도 활발한 논의와 개선과 보완의 작업이 계속 되고 있을 만큼, 아직 완전한 학문의 틀을 갖추지 못한 성장 과정의 新生 학문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문화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려는, 따라서 여러 학문 분야의 종합적 연구 방법을 필요로 하는 미국학의 근본적 성격을 고려할 때 미국학이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학문적 틀을 갖춘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미국학이 우리 나라의 學界에 소개되고 하나의 학문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그 10여년 동안 우리 나라의 미국학계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는 거의 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초라하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학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음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문학의 분야에서 미국의 경우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지 미국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입각한, 궁극적으로 미국의 문화 자체에 대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말을 바꾸면 미국에 관한, 미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곧 미국학 연구와 等式 관계를 이룰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우리의 미국학 연구의 不進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의 학문으로서 미국학의 이론과 방법론이 아직 완전히 定立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 그 첫째요, 외국 문화의 연구에 필수 조건이 되는 그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안목과 이해를 갖추기가 어렵다는 점이 그 둘째요, 여러 관련 학문 분야의 기초적인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요구하는 미국학의 협동 학문적(interdisciplinary) 특성이 주는 부담이 그 셋째요, 외국의 國學 연구가 자칫 빠지기 쉬운 二次的 학문으로서의 소극성 및 피상성의 위험이 그 네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 나라 미국학계의 불모성을 감안할 때 金容權 교수의 *Alfred Stieglitz and His Time*은 우선 본격적인 미국학 연구의 산물이라는 점만으로도 높은 평가와 주목을 받을 만하다. 주지하다시피 유능한 영문학자로 활약해 온 김교수가 그의 박사 학위(Minnesota대학) 논문인 이 저서에서 작가나 문학 작품이 아닌 사진 예술가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미국학에 대한 그의 열의와 성실성, 그리고 미국 문화 전반에 대한 그의 폭 넓은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잘 대변해 준다. Alfred Stieglitz라는 한 사진 예술가의 傳說적인 생애를 통하여 미국 문화의 특성을 파악해 보려는 한 시도로서 이 저서는 Introduction과 본문 5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Introduction에서 김교수는 Stieglitz의 생애와 예술이 모순적 요소와 모호성으로 가득차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모호성은 독일 유대계 출신이라는 그의 유럽 문화적 전통과 청교도적 배경의 새로운 미국 정신과의 만남, 도시와 자연에 대한 그의 愛憎의 태도, 카메라로 상징되는 기계 문명의 예술적 가능성에 대한 그의 믿음과 예술에 대한 그의 匠人 의식의 양립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Stieglitz를 미국의 전통 안에서 파악하고 소위 Stieglitz 전설의 과정을 추적해 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제 1章 “The Origins”는 대체로 19세기 말까지의 Stieglitz의 傳記的 내용을 소개하면서 Introduction에서 지적한 Stieglitz의 생애의 모순적 요소를 그의 실생활과 좀더 구체적으로 관련지음으로써 그의 인생관과 예술관의 형성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어렸을 적 까만 옷을 입은 키 큰 여인에게서 받은 강한 인상으로부터 아마도 비롯되었을, 흑백의 강렬한 대조를 통한 삶의 진상의 표현, Lake George의 생활에서 느낀 도시적 삶과 전원적 삶의 갈등, 그 갈등에서 비롯된 삶의 極化(polarization)에 대한 그의 강한 의식, 독일인이며 동시에 미국인이어야 하는 그의 二重的 identity에서 오는 자신에 대한 회의감과 미국 사회에서의 소외 의식, 10년 간의 독일 유학을 통하여 더욱 첨예해진, 미국에 대하여 비판적이며 동시에 옹호적인 그의 愛憎의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Stieglitz의 모순적 요소와 모호성의 정체를 밝혀 주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 章에서 강조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19세기 말 급격한 산업화, 기계화의 과정이 가져 온 미국 사회의 물질주의적인 정신 不在의 풍토, 그리고 산업화 과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물질주의적 非人間化의 풍조를 격렬히 비판하는 Stieglitz의 二重的 태도이다. 이 정신주의(혹은 理想주의)와 물질주의(혹은 현실주의) 사이에서의 Stieglitz의 갈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갈등이 H.N. Smith, Leo Marx등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 문화의 主脈을 이루어 본 주요 전통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하면 이 章은 Stieglitz를 미국적 知性的 한 전형으로 보고 그의 생애의 갈등과 二重性을 미국 문화 자체의 그것으로 파악하려는 김교수의 입장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Stieglitz의 사진 예술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 2章 “More Developments”는 대체

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Stieglitz의 사진술의 배경과 발전을 주로 技術的 측면에서 추적하고 있는 첫부분은 사진이 취미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19세기 말 미국의 메마른 예술적 풍토에서 사진술을 獨自의 표현 媒體로서의 한 새로운 예술로 발전시키고 그것의 심미적 가치와 문명 해석으로서의 사실적 가치를 병행시키려는 Stieglitz의 실험적 노력, 그리고 후기 인상과 繪畵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glycerin process'나 'gum-process'의 방법으로 부터 매체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straight photography'로의 Stieglitz의 사진술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Stieglitz는 카메라의 기계적 한계와 동시에 그 한계 안에서의 사진의 예술적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다. 'straight photography'에의 Stieglitz의 집념은 객관적 사실성과 주관적 예술성을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사진의 이러한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며, 인간의 정신과 기계 문명적 환경을 조화시킴으로써 「기계를 인간화」하려는 Stieglitz의 의도에는 'straight photography'의 방법이 아마도 가장 적합했을 것이다.

두번째 부분은 'straight photography'의 기교를 구사하여 도시적 산업 문명적 환경을 인간화하려는, 즉 그 자신의 말을 빌려 「自身과 기계를 하나로」 파악하려는 Stieglitz의 예술가적 노력을 그의 대표적인 몇몇 초기 작품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산업 문명의 새로운 질서의 상징인 기관차를 소재로 인간과 기계 사이의 불가분의 紐帶를 암시하고 있는 "The Hand of Man" (1902)과 skyscraper와 큰 나무를 並置하여 기계와 자연을 조화시키려는 "The Flat Iron Building" (1902~3)에 대한 김교수의 분석은 매우 탁월하다. 또한 skyscraper를 소재로 한 초기 작품들은 地面에서 뿔어 오른 높은 건물들을 수평 위치에서 포착함으로써 자연과 기계 문명의 조화감을 전하고 있는 반면 그의 후기 작품들은 건물들을 地面과 유리된 높은 위치에서 흑과 백의 강렬한 대조로 부각시킴으로써 높은 건물들만이 군림하는, 인간과 자연이 소외된, 기계적 세계를 보여 주고 있다는 김교수의 관찰은 대단히 날카롭다. 그 변모는 인간과 자연과 기계의 병치 혹은 조화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로 부터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기계 문명 사회에서의 점증하는 소외 의식으로서의 변모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Hawthorne, Melville, Mark Twain, Howells, 심지어 Emerson이나 Whitman의 생애에서도 암시되고 있듯이 미국적 현실에 대한 미국의 대표적인 예술가나 사상가들의 공통된 반응으로서 이러한 변모의 pattern은 미국 문화의 특성과 그 虛實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同人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잡지 발간과 전시회를 통한 Stieglitz의 본격적인 예술 활동의 시작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세번째 부분에서는 *American Amateur Photographers*와 *Camera Notes*의 편집인으로서의 예비 활동을 거쳐 1903년 *Camera Work*의 창간과 함께 그가 본격적으로 주도하기 시작한 Photo-Secession movement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Camera Work*를 통한 그의 예술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다음 章에 속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진 예술가들의 친목과 단합, 우수 작품 초청 전시, 상업성을 지양한 사진 예술의 권위와 순수성을 높이는 일을 주요 과제로 삼은 이 movement를 통하여 Stieglitz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workman ideal’, 人性의 해방, 예술과 인생에 있어서의 순수성과 진실성과 자유 의식은 미국 문화의 주요한 전통인 미국적 idealism과 같은 궤적에 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미국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국적 생활과 문화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대단히 아이러니컬하며 이 아이러니는 미국문화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아이러니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의미를 Stieglitz의 예를 통하여 보다 깊이 탐험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이 章은 남기고 있다.

“Camera Work and American Culture”라는 제목의 제 3 章은 Camera Work와 “291” Little Gallery를 통한 Stieglitz group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활동의 중요성은 대략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적 삶과 문화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비평 작업으로서의 중요성, 둘째, Benjamin de Casseres의 “giant conspiracy of mediocrity”라는 말에 훌륭히 농축되어 있는, 미국 문화의 물질주의적 안일주의와 respectability-conformity의 타성에 젖은 예술적 기풍을 개선하려는 강력한 개혁 정신, 셋째, Camera Work와 “291”을 통하여 강조되고 있는 ‘sincerity’, ‘honesty’, ‘cleanliness’ 등의 용어가 전달하는 암시적 의미의 중요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章이 示唆하고 있는 보다 중요한 점은 Stieglitz group의 비평 및 개혁 작업이 자기 비평, 자기 개혁이라는 미국적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유럽적인 elite 예술관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도 민주 사회에서 대중을 啓導할 미국적 예술관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예술관이 자발적 감성과 자유로운 상상력 위에 세워진 예술의 심미적 가치를 중시 하면서도 동시에 예술의 啓導的인 도덕적 가치와 예술가의 성실한 匠人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honesty,’ ‘sincerity,’ ‘clean’ 등 Stieglitz group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들은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그들이 Stieglitz를 그렇게 일컫는 ‘prophet’, ‘seer’라는 용어 역시 김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도덕적 종교적 의미를 함축하는 미국의 종교적 rhetoric의 전통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교수가 이 章에서 애써 암시하고 있는 것은 Stieglitz group의 활동이 미국적 전통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제 4 章 “The Equivalents: Life and Art”는 이러한 도덕 의식에서 비롯된, 예술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예술가는 예술가이기 전에 먼저 인간이어야 한다는 Stieglitz의 예술관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해석과 표현으로서의 그의 예술 활동을 추적하고 있다. 한 작가의 유기적 성장과 발전을 전체적으로 보여 주는 Stieglitz의 작품 전시 방침은 이러한 그의 예술관에 근거한 것이며, 그의 후기 작품에서 개인적 경험의 抽象性에 차츰 몰입하면서도 그가

줄곧 貝象의 세계에서 그의 소재를 구한 것 역시 이러한 그의 예술관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미국적 현실의 구상적 양상에 대한 Stieglitz의 집념은 추상적 이미지에의 깊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유럽의 추상예술을 거부하게 하고 고립주의적 nationalism의 경향을 띄게 했던 반면, 미국의 현실에 대한 그의 불만과 회의는 그로 하여금 차츰 예술 작품에 있어서 정신적 상징적 의미를 추구하게 하고 상징주의적 예술관에 기울게 했다는 김교수의 주장은 Stieglitz 예술에 있어서 구상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 사이의 갈등, 그리고 예술과 삶의 관계에 대한 그의 복합적 태도를 설명하는 데에 매우 示唆的이다.

Stieglitz 전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마지막 章 “The Legend”는 Stieglitz의 神話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변모 과정을 거쳐 왔는가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주로 언론 비평가와 미술가들에 의하여 ‘prophet of new art’, ‘high priest of “291”’으로서 Stieglitz의 신화적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291”-*Camera Work*시기가 그 첫 단계요, 미술가뿐만 아니라 Sherwood Anderson, Waldo Frank 등 문인들에 의하여 ‘artistic savior’로부터 ‘cultural and moral force’로 Stieglitz의 이미지가 변모해 가는 Intimate Gallery—An American Place 시기가 그 둘째 단계요, Waldo Frank, Lewis Mumford, Paul Rosenfeld 등이 공동으로 펴낸 *America and Alfred Stieglitz*에서 예술적 문화적 영웅으로서 Stieglitz의 초인적 자질이 우상화되기 시작한 1934년 이후가 그 세째 단계이다. 김교수는 Stieglitz group을 일종의 狂的 예술 집단으로 보는 Thomas Benton이나 Stieglitz의 편파성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Edmund Wilson의 경우를 예로 들어 Stieglitz 전설이 긍정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Steerage”의 그릇된 해석에서 例示되는 mythmaking 과정상의 과장과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Stieglitz 전설의 허실을 가능한 한 정확히 추적해 내려고 노력한다. 김교수는 또한 그를 예술 활동으로서 Stieglitz의 공적에 의문을 표시하고 Stieglitz에 있어서의 신화와 실제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Harold Clurman이나 Stieglitz의 정신을 미국적이 아닌 半유럽적인 것으로 비판하는 J.G. Fletcher의 의견에 신중히 귀를 기울이며 Stieglitz 자신도 그의 노력의 한계를 시인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Stieglitz 신화의 진상을 가능한 한 중립적 입장에서 정확히 이해하려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교수는 Stieglitz의 위치를 미국의 prophetic tradition에서 파악하려는 입장에 강력히 동조하고 있는 듯이 보이며, Stieglitz는 그의 전설이 암시하는 것보다 더 생명력이 강하고 더 위대한 인물이라는, 그 정열적 진지성, 예민한 감수성, 강렬한 개성의 주장, 삶의 진실에 대한 철저한 추구에 있어서 D.H. Lawrence와 비견할 만한 위대한 예술가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로써 이 논문을 끝맺고 있다.

Introduction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리고 이 책의 副題가 암시하고 있듯이 이 책은 연대기적 생애의 기록이라는 일반적 의미의 傳記와는 구분되는, 한 예술가의 정신적 예술적 삶의 정체를 추적하고 있는 하나의 知的 초상화이다. 그것은 Leon Edel이 시사한 바 상상력을

통한 창조적 비평과 분석을 포함하는 문학적(혹은 예술적) 전기에 다름이 아니다. Leon Edel은 문학적 전기의 생명은 전기 작가 자신의 내적 탐험을 통하여 그가 다루는 작가의 예술적 삶을 재창조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김교수는 Stieglitz의 정신적 삶의 정체를 궁극적으로 낭만적 이상주의라는 미국 문화의 한 특성 안에서 파악하고 그 정체의 신화적 의미를 불가능한 것의 불굴의 투쟁이라는 미국 정신의 주요한 한 전통의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Stieglitz의 예술적 삶을 재창조하는 데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재창조는 Leon Edel이 암시하는 수준의 만족감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그것은 Stieglitz의 생애의 외적인 data에 보다 충실한 나머지 Stieglitz 예술 자체에 대한 김교수 자신의 주관적 탐험이 다소 약화된 데서, 다시 Leon Edel의 말을 빌려 이른바 “psychological speculation”의 강도가 약화된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논문이 남기는 또 하나의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은 한 예술가의 생애의 신화적 의미를 문화적 문맥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연구에서 신화(myth)에 대한 보다 분명한 학문적 개념 설정이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점이다. 그러나 Stieglitz의 외적 data에 더욱 충실한 것은 Stieglitz 전설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보다 공정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김교수의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고 신화와 문화와의 함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목적이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위에서 말한 두가지 아쉬움이 이 논문의 중요한 결함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은 정확하고 유려한 영어 문체 속에 미국 문화와 예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자료의 수집 활용에 있어서 탁월한 학문적 성실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미국학 연구의 큰 수확임에 틀림 없다.